

판본별 교감을 통한 『동의보감』의 정본화

이정현, 오준호
한국한의학연구원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Various Editions of *Donguibogam*

Jeong-Hyeon Lee, Junho O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Much research has already been done on *Donguibogam*. However, comparison of specific characters was not done because researchers found it difficult to compare different editions of the text in one place. Recently, important editions have been published on the Internet, making comparison possible.

In this paper, researchers compare eight editions *Donguibogam*, including the original edition published in 1613 and seven other editions corrected by the *Naewiwon* (Joseon Dynasty National Medical Center). The comparison results were summarized and tabulated. The results of the comparison are analyzed and presented in this article as a chart. The result of comparing the characters and the analyzed graph were in agreement.

The authors propose that all written and electronic publications of *Donguibogam* should refer to other editions implied, quoted or referenced within the text and including with proper citations, and reference the original and first edition.

Inadequate referencing will pollute future knowledge of this foundational text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may result in perpetration of mis-information.

Based on accumulated knowledge and study of historical Korean Medicine texts, the *Namsan* edition made a mistake in the editing process. The year of publication of *Gabsul-yoengyoeng-gegan* Edition needs to be studied again and corrections made where appropriate.

Key words : *Donguibogam*, Comparison of traditional Korean characters, Editions, Similarity analysis

I. 서론

오늘날 전해지는 고서(古書)는 비록 하나의 책일지라도 다양한 판본이 존재하며 복잡한 인용관계를 가진다. 특히 널리 읽힌 서적일수록 여러 차례 판각되어 판본의 종류가 다양하며, 판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글자 혹은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판본을 기준으로 내용을 고찰하였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판본 사이의 글자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본(定本)’을 만들게 된다. 정본은 원 저작자의 의도에 가장 가까운,

해당 서적의 ‘표준’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정본이 만들어지게 되면 판본 차이에서 오는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문헌의 내용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본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떤 서적의 정본을 만드는 작업을 정본화라고 한다. 정본화 방법은 판본의 종류, 인용 서적과 인용 방식의 차이, 전승과 유전의 내력 등 해당 서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서지학 연구를 통해 보존상태가 좋고 내용의 왜곡이 적다고 인정되는 선본(善本)을 선택한 뒤, 다른 판본과의 차이를 ‘교감’하여 정본을 만든다.

교감(校勘)은 “어떤 고적의 각기 다른 여러 판본을 수집하여 그 문자나 어구의 차이를 비교하고 검토하여 그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작업”¹⁾이다. 교감의 이상적인 목적은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글자 혹은 어구의 왜곡을

접수 ▶ 2018년 05월 07일 수정 ▶ 2018년 05월 29일 채택 ▶ 2018년 05월 28일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한의 고문헌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도
구 개발(K18201)”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교신저자 ▶ 오준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042-868-9317 E-mail : junho@kiomre.kr

1) 倪其心 저. 신승운 외 옮김. 『교감학개론』. 서울:한국고전번역원. 2018:21.

밝혀 원작자가 의도한 최초의 내용을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서의 경우 원작자가 영면한 뒤이기 때문에 문맥만으로 이러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판본 사이의 글자 혹은 어구 차이를 독자에게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헌 연구에서 교감을 통한 정본화는 해당 문헌의 내용을 논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폭넓은 판본의 수집, 충분한 서지학적 고찰, 교감을 위한 막대한 자원의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고전적 연구 초기에 이루어지는 교감을 중요한 연구 과제로 생각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본화를 생각한 상태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논하는 것은 자칫 사상누각이 될 위험이 있다. 특히 의학문헌의 경우에는 사소한 글자 차이에 따라 치료 대상과 치료 방법이 상이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본화의 필요성은 가중된다. 하지만 현재 한의학 고문헌에 대한 정본화 성과는 미미하며, 대부분 중국의 교감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정본화는 모든 서적에 필요하지만, 『동의보감』은 정본화가 가장 시급한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 『동의보감』은 한국 전통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서적으로 많은 판본이 존재하고 오늘날 많은 연구들이 이 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동의보감』의 정본화 작업은 이미 몇 차례 이루어졌다. 오늘날 통행본으로 자리 잡은 남산당(南山堂) 영인본은 최초의 정본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남산당 영인본은 갑술완영중간본을 저본(底本)으로 하였으며, 영인 과정에서 문맥에 따라 일부를 교정하였다. 그러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 수정이 아니며 수정된 부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의 정본화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거질을 축쇄 영인하여 휴대가 가능한 1권으로 출간했으며, 목차와 색인으로 편의성을 높였기에 『동의보감』 원본 대중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

본격적인 교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은 윤석희본(동의보감출판사)³⁾, 원진희본(신우문화사)⁴⁾, 郭霽春本(中国中医

药出版社⁵⁾에서 확인된다. 윤석희본은 국역 과정에서 『동의보감』 원문과 인용 서적의 원문을 비교하는 작업을 폭넓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에 주석으로 담았다. 특히 초간본을 저본으로 삼고 통행본인 남산당 영인본과 교감하였다. 원진희본은 『동의보감』에서 밝힌 인용서적의 내용과 『동의보감』의 원문 내용을 비교하였다. 두 서적은 인용 문헌과의 글자 혹은 구절 비교를 목적으로 한 작업으로 『동의보감』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작업의 목적은 동의보감과 인용서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동의보감 주요 판본 사이의 교감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학술적인 의미에서 교감을 통한 『동의보감』의 정본화 작업으로는 郭霽春本(中国中医药出版社)을 들 수 있다. 郭霽春本은 조선판 3종(남산당 영인본 포함), 일본판 1종, 중국판 5종에 대해 폭넓은 교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고문헌을 정리할 때는 원칙적으로 초간본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동의보감』 판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초간본이 빠져있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동의보감』 판본 사이의 교감을 통해 정본화를 수행하였다⁶⁾. 본고에서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지견을 서술하고자 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교감의 목적은 정확한 글자와 내용의 고증이다. 근대적 교감학의 이론체계를 정립한 첨위엔(陳垣)은 『교감학석례(校勘學釋例)』에서 교감의 원칙을 논의한 바 있다. 그가 세운 교감의 원칙은 대교(對校), 본교(本校), 타교(他校), 이교(理校) 4가지로, ① 대교는 다른 판본과 비교, ② 본교는 책의 앞뒤를 비교, ③ 타교는 인용서적과 비교, ④ 이교는 문리로 교감하는 것이다⁷⁾.

2) 2018년 4월 28일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RISS>에서 '동의보감'을 검색하면 학위논문 464건, 국내학술지논문 936건, 단행본 2303건 등 총 3715건이 출력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동의보감'을 검색하면 각 기관에 소장된 292종이 출력된다.

3) 허준 저, 윤석희 외 옮김, 『동의보감』, 초판3쇄, 하동:동의보감출판사, 2006.

4) 허준 저, 원진희 외 역, 『(정교주역)동의보감』, 2판, 서울:신우문화사, 2007.

이보다 앞서 정교본이 간행된 바 있다. 허준 저, 원진희 외 점교, 『(정교)동의보감』, 서울:한미의학, 2001.

5) 许波 编着, 郭霽春 主校, 『东医宝鑑』, 北京:中国中医药出版社, 2013.

6) 연구 결과 만들어진 정본은 초간본의 판형을 살려 출판되었다. 허준 저, 한국한의학연구원 간행,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광주:수퍼노바, 2017.

교감의 방법은 4가지이지만, 정본화의 순서로 본다면 본교와 대교를 통해 원문을 정리한 뒤에 타교와 이교를 통해 모호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본교와 대교 없이는 타교와 이교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동의보감』의 교감은 대교와 본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교 중심의 교감이 다수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본 사이의 교감, 즉 대교를 중심으로 교감을 진행하였다.

1. 대상 선정

대교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원본의 확보이다. 본고에서는 박훈평⁹⁾이 정리한 『동의보감』 판본을 근거로 초간본 및 내의원 교정 후의 판본을 1차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①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② 완질이 구비되어 있으며¹⁰⁾ ③ 소장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고서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판본을 2차 대상으로 삼았다. 번각(飜刻)이나 보각(補刻)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간이 같더라도 조건에 맞는 판본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각각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교의 출발점이 되는 저본(底本)은 정본화의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초간본으로 하였다¹¹⁾. 국보 319호로 지정된 목활자 초간본은 3개 기관에 소장 중인데, 본고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이미지를 제공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택하였다.

현재 통행본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남산당본은 갑술완영중간본을 모본으로 하였다. 그러나 영인 과정에서 군데군데 글자를 수정하여¹²⁾ 갑술완영중간본과는 차이가 생겼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별도의 판본으로 보고 대교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선정 기준을 통하여 최종 대상으로 삼은 판본은 <표 1>과 같으며 이하 각 판본은 약어로 칭하기로 한다.

표 1. 연구 대상 판본

약어	간행연도	판본명	판사항	소장처	청구기호	
A초간(국)	1613	초간본	목활자본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한貴古朝68-3
B갑영(동)	1814(?)	甲戌嶺營開刊	목판본	일본	동양문고	XI-4-B-53
C기영(나)	1779	己亥嶺營開刊	목판본	일본	나카노시마도서관	韓6-77
D기영(국)	1779	己亥嶺營開刊	목판본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승계古7671-34
E갑완(나)	19세기 중후반	甲戌完營重刊(번각본)	목판본	일본	나카노시마도서관	韓12-24
F갑완(국)	19세기 중후반	甲戌完營重刊(번각본)	목판본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8-2
G갑완(와)	1814	甲戌完營重刊	목판본	일본	와세다대학	ヤ09 00773
H갑완(남)	1987	남산당본(신증판)	목판본	한국	-	-

- 7) 黃永年 지음. 김언중, 김수경 옮김. 『고적정리개론』. 서울:한국고전번역원. 2013:129.
- 8) 黃永年. 위의 책. 130-131. “대교법이 아니면 결코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의 자체로는 의심할 만한 오류가 없기 때문이며, 오류가 있는 줄 알지만 대교법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9) 박훈평.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대한의사학회. 2015;28(1):25-37.
- 10) 각 기관에 소장된 판본 중 동일한 청구기호를 가졌으면 완질이라고 가정하였다. 각 판본이 온전한 완질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물을 직접 살펴보아야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D기영(국) 판본은 내경편권1이 낙질이지만 나머지 권은 상태가 좋아 최종 대상에 포함하였다.
- 11)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최채기 지음. 『고전적정리입문』. 대전:학민문화사. 2011:144.
저본의 선정 기준 중에 초간본과 중간본에 대한 4가지 항목이 있다.
 - a. 원칙적으로 초간본을 선택한다.
 - b. 저자의 저술이 증보된 경우에는 중간본을 택한다. 저자의 저작이 아닌 관련 기록이나 전기자료만이 증보된 경우에는 택하지 아니한다.
 - c. 저자의 저술이 증보되지 않았더라도 교감 등의 방법으로 재정리된 경우에는 중간본을 택한다.
 - d. 원집이 간행된 후 속집, 외집, 별집 등이 원집과 함께 중간된 경우 원집부분은 가감이 없는 한 초간본을 선택한다. 3차례 이상 중간된 경우 속집 등 2번째 간행된 것도 이에 준한다.
- 12) 남산당본이 갑술완영중간본을 수정했다는 내용이 아래와 같이 책머리에 서술되어 있다.
허준 저. 『원본 동의보감 신증판』. 신증판 7쇄. 서울:남산당. 2004:1-3. “..... 그리고 원문에 간혹 있는 오자는 바로잡고, 약자는 정자로, 고자는 현재 쓰고 있는 한자로 고쳐서 신는데 최선을 다했음을 밝혀둔다. 그러던 중, 1966년 8월에 획기적인 출판기획으로 이뤄진 풍년사판 <국역동의보감>이, 원문을 붙여서 간행(이하 초판이라 함)되었을 때 세상은 놀랐다. 풍년사 홍종하 사장께 상의하여, 그 저작권, 출판권 일체를 인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책임감수하여 주신 김영훈·신길구·김재성·배원식 네분 선생님의 노고에 새삼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았다. 또 본문 내용에 있던 약간의 오식과 오역을 정정하였다. 초판에 대하여 증보판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이체의 원문은, 1814(순조14년 갑술)년 완영중간 목판본을 원서로 한 영인본이다. 원서의 자체가 선명하지 않은 부분은 이를 수정 혹은 개서하여 불품 있게 보정하였으므로 원서에 비하여 글자는 축소되었지만 선명도와 체제에는 추후도 손색이 없다. 대만판에 흡사하지만 그 보다 선명도를 높이고, 체제 등에 대하여 잘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서문과 총목이 목차 다음, 집례의 앞에 끼어 있다. 1966년(병오)에 풍년사가 완영중간본을 원서로 하여 영인본을 만들어 국역판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교감은 판본 이미지를 확보하는 ‘준비 단계’, 실제 교감을 진행하는 ‘교감 단계’, 교감 결과를 정리하는 ‘정리 단계’, 판본 간의 차이를 고찰하는 ‘검토 단계’로 수행되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준비 단계

교감을 위해 먼저 소장처에서 제공하는 고서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A초간(국), D기영(국), F갑완(국) 3개의 판본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일본 동양문고와 나카노시마도서관에 소장된 C기영(나), B갑영(동), E갑완(나) 3개의 판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일본 와세다대학교에 소장된 G갑완(와) 판본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남산당에서 발행된 H갑완(남)은 출간된 서적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8개 판본의 이미지를 확보한 후 판본마다 페이지를 통일하였다. 각 소장처마다 『동의보감』의 순서를 다르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H갑완(남)과 동일하게 서문-총목-목록(상하)-내경편-외형편-잡병편-침구편으로 배치하였다¹³⁾. 한 페이지는 고서 2장(목판 2장)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800페이지로 정리되었다. D기영(국) 판본은 내경편 권지일이 낙질이므로 해당 부분만큼 빈면으로 처리하였다.

2) 교감 단계

판본 사이의 교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자를 하나

하나 검토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90만자에 육박하는 『동의보감』 전체 글자를 8개 판본에 대하여 모두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작업의 효율을 높였다¹⁴⁾.

우선 A초간(국)과 H갑완(남)을 전체 비교하였다(1). 전자는 본 연구의 저본이자 초간본이라는 중요성 가지며, 후자는 현재 통행본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의의가 있다. 이에 이들의 전체 글자를 모두 비교하는 방식으로 대교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출간된 서적 중에 포함된 교감기를 추출하여 교감 부분을 따로 정리하였다(2). 서문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윤석희본(동의보감출판사), 원진희본(신우문화사), 郭壽春本(中国中医药出版社)에는 『동의보감』의 교감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A초간(국)과 H갑완(남)의 전체 비교를 통해 얻은 교감 결과(1)와 선행 연구에서 추출한 교감 결과(2)를 하나의 표에 모으고 원문에 매칭시켜 원문 이미지 페이지, 장차, 행열¹⁵⁾을 붙여 각 판본에서 해당 글자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준비하였다. 이후 8개 대상 판본 전체에서 해당 부분마다 글자와 구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수조사하였다¹⁶⁾.

3) 정리 단계

대교 결과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교감표’로 정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쇄 상태가 좋지 못해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판독불가’로, 글자가 빠진 경우에는 “누락”으로, 유니코드에 없는 글자는 【台+鳥】처럼 파자(破字)하여 기재하였다. 작은 글자는 “[四方見上]”처럼 표기하였고, 예외사항은 “난외 네모 속에 唐”처럼 차이를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목판본에서 자획 일부가 탈락되어 모양이

13) 본 연구에서는 편의를 위해 통행본인 H갑완(남)의 페이지 순서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동의보감』의 목록 상하권은 본래 본문과 다른 별권(別卷)으로 인식되었거나, 부록 형태로 『동의보감』의 마지막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사기는 대개 책의 첫 부분에 위치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초간본에 내사기가 내경편(內景篇) 권지일(卷之一)에 있다.

둘째, 서문(序文), 총목(總目), 집례(集例) 등은 보통 책의 첫 부분에 위치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초간본 등 다수 판본에서 이들 내용이 내경편(內景篇) 권지일(卷之一) 모두(冒頭)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간기(刊記)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간기가 없는 초간본을 제외하고 내의원 교정 이후의 모든 판본은 간기(刊記)가 목록(하) 마지막장에 붙어있다.

넷째, 일본 나카노시마 도서관에 소장된 갑술완영증간본은 표지에 숫자로 책차가 붙어 있는데, 내경편1 표지에 ‘1’을 시작으로 침구편 표지에 ‘23’으로 끝나 있으며, 목록 상하권에는 숫자 차서가 없었다.

후대에 사서들이 책을 정리하면서 표지에 별도의 순서가 적혀있지 않아 습관적으로 목록을 앞 부분에 배치하였고, 남산당본도 이를 따라 목록을 앞부분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14) 黃永年이 주장한 교감기의 작성 방법에서도 처음으로 꼽는 것이 기존의 성과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黃永年. 위의 책. 174.

15) 위치정보는 ‘5행-중하’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행은 대부분 명확하지만 자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림과 표 형태에서는 자수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상중-중-중하-하’ 다섯 가지 위치를 사용하였다.

16) 초간본에는 하나의 행에 활자를 우겨넣어 억지로 1자를 더 넣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판본에서는 행자수를 균일하게 조정하여 1-2행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판본간 페이지 번호는 초간본의 위치로 기입하였다.

달라졌더라도 남아 있는 자형을 근거로 온전한 글자를 확실히 유추할 수 있는 글자는 교감 대상으로 넣지 않았다. D기영(국)의 경우 내경편 권1이 결권이므로 해당 부분을 “낙질”로 기입하였다.

판본간의 차이를 감별하기 위해 글자 이외에 기호·행자수·배치나 권차의 차이까지 교감의 대상으로 삼았다. ‘기호’는 권점(○◇△●)이나 특수문자(∧), 탕액편 난외에 표시된 “唐” 등이며, ‘행자수’는 판본마다 행자수(行字數)가 일정하지 않는 부분이며, ‘권차의 차이’는 장정할 당시에 내지의 순서가 바뀐 경우이다.

교감 과정에서 글자의 오류가 분명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본교, 타교 등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았다. 간혹 上과 匕(匙)처럼 본래의 글자로는 전혀 문맥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문맥을 고려하여 이교를 통해 바로잡았다. 이 결과는 교감표에 ‘교감’이라는 별도의 칸에 정정할 글자를 기입하였다. 다만 8종의 판본이 모두 같으며 문맥에도 지장이 없는 글자인 경우에는 교감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생략하였다.

4) 검토 단계

교감표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판본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두 판본 사이의 유사도(Similarity)는 두 판본을 갑과 을이라고 하였을 때, 갑과 을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고에서는 교감 목록 전체 대비 차이가 없는 부분의 비율로 계량화하였다. 값이 클수록 판본 간 차이가 적다고 할 수 있다. 값의 최대값은 1로 교감 목록 전체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이며, 최소값은 0으로 모두 일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두 판본 사이의 거리(Distance)는 두 판본 갑과 을이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본고에서는 교감기 목록 전체 대비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의 비율로 계량화 하였다. 값이 클수록 판본 간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값의 최대값은 1로 교감 목록 전체가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이며, 최소값은 0으로 모두 일치하는 경우이다. 두 판본 사이의 거

리는 1에서 두 판본 사이의 유사도를 뺀 값과 같다.

본고에서는 판본 사이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판본 사이의 거리값을 토대로 다차원척도법과 계층적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은 개체들 사이의 거리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보통 개체의 수가 늘어나면 개체 사이의 관계는 다차원에 분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는 인간이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원을 축소하여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보다 낮은 차원(보통 2차원 평면)에 이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용되는 방법이 다차원축소법이다. 차원 축소 시 어느 정도의 왜곡이 발생하지만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다차원척도법 수행과 시각화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R과 R의 cmdscale 함수를 이용하였다.

계층적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ing, HC)은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 개체들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군집(Clustering)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가장 유사한 개체들끼리 군집으로 묶어가는 방식으로 전체 개체의 관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계층적군집분석의 수행과 시각화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R과 R의 hclust 함수를 이용하였다¹⁷⁾.

III. 결과

1. 교감표

각 판본별로 교감을 실시한 결과 총 918건의 교감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만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교감기의 전체 내용은 본 교감을 토대로 만들어진 『동의보감』 정본화 결과물인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¹⁸⁾ 부록에 실려 있다. 판본의 순서는 유사한 판본끼리 붙여서 재배치하였다. 유사도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에서 따로 언급할 것이다.

17) 계층적군집분석의 응집방법은 완전기준 결합방식(complete linkage)을 적용하였다.

18) 허준 저. 한국한의학연구원 간행.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광주:수퍼노바. 2017:부록159-177.

표 2. 『동의보감』 8종 판본의 교감표

권	페이지	장차	행-열	교감	A초간(국)	B갑영(동)	C기영(나)	D기영(국)	E갑완(나)	F갑완(국)	G갑완(와)	H갑완(남)
목록(상)	8	7장-좌	4-상		入	天	天	天	入	入	入	入
	8	8장-우	3-상		辨病證	辨病證	辨病證	辨病證	辨病證	辨(공백2칸)病證	辨病證	辨病證
	20	31장-좌	10-중		不	不	不	不	不	不	不	又
목록(하)	25	42장-좌	7-중		皮	皮	皮	皮	皮	탈락	皮	皮
	42	11장-좌	4-중하		十	탈락	十	十	탈락	탈락	탈락	탈락
	62	52장-좌	9-상	鶻(본문)	雀	雀	雀	雀	雀	雀	雀	雀
내경1	64	55장-우	1-상		舌	大口	大口	大口	大口	大口	大口	大口
	81	25장-우	1-하		芎	芎	芎	낙질	芎	芎	芎	川
	84	31장-좌	3-중		五藏	入門	入門	낙질	入門	入門	入門	入門
	86	36장-좌	2-하		气	氣	氣	낙질	氣	氣	氣	氣
내경2	92	47장-우	8-중		五皮散沈香降氣湯[四方見上]	沈香降氣湯[三方見上]五皮散[方見浮腫]	沈香降氣湯[三方見上]五皮散[方見浮腫]	낙질	沈香降氣湯[三方見上]五皮散[方見浮腫]	沈香降氣湯[三方見上]五皮散[方見浮腫]	沈香降氣湯[三方見上]五皮散[方見浮腫]	沈香降氣湯[三方見上]五皮散[方見浮腫]
	93	49장-우	2-상		六	七	七	낙질	六	六	七	七
	99	61장-좌	9-중		朱	[方見婦人]朱	朱[見人]朱	낙질	[方見婦人]朱	[方見婦人]朱	[方見婦人]朱	[方見婦人]朱
내경3	114	16장-우	7-중하		[一云黃連]	[一云黃連]	黃連	黃連	[一云黃連]	黃[云連]	[一云黃連]	黃[云連]
	126	40장-좌	10-상중		朮	只	只	只	朮	朮	只	朮
	132	52장-우	8-상중		水	水	水	水	水	水	水	水
내경4	140	3장-좌	2-하		[己之所勝]	[己之所勝]	[己之所勝]	[己之所勝]	[己之所勝]	[己之所勝]	[己之所勝]	祀[之勝]
	141	5장-우	7-중		一	七	一	一	七	七	七	七
	142	7장-좌	2-상		[養生書]	[養生書]	養生書	養生書	[養生書]	[養生書]	[養生書]	[養生書]
	143	9장-우	8-중		也[入門]	顧下	也	也	也[入門]	也[入門]	也[入門]	也[入門]
	147	17장-우	9-중		韭	葱	韭	韭	葱	葱	葱	葱
	153	29장-좌	10-하		泌別清濁	泌別清濁	泌別清濁	泌別清濁	必別清濁	必別清濁	泌別清濁	泌別清濁
	163	50장-좌	9-상		枝	枝	枝	枝	皮	皮	枝	枝
외형1	169	61장-좌	7-중하		天	大	大	大	天	天	天	天
	176	8장-우	4-상		置	置	買	買	買	買	買	買
	177	10장-좌	9-중		干	工	干	工	下	下	干	干
	179	13장-좌	3-중하		[卽一兩]	[卽一兩]	兩一	兩一	[卽一兩]	[卽一兩]	兩一	兩一
외형2	198	51장-좌	4-중		七十	七十	七十	七十	아래 여백에 왼쪽의 내용이 중복해서 들어감	아래 여백에 왼쪽의 내용이 중복해서 들어감	七十	七十
	198	52장-좌	10-상		生	生	生	生	生	生	生	住
	199	53장-좌	6-중		不得	之得	之不	之不	之不	之不	之不	之不
외형3	209	10장-좌	3-하		三	五	五	五	五	五	五	五
	220	32장-우	2-하		宜通肝散[得效]	[宜通肝散]○得效	[宜通肝散]○得效	[宜通肝散]○得效	[宜通肝散]○得效	[宜通肝散]○得效	[宜通肝散]○得效	[宜通肝散]○得效
	222	35장-우	1-상		一	三	一	一	三	五	一	一
외형4	250	28장-좌	3-하		治	治	治	治	齒	齒	治	治
	254	36장-좌	7-중하		不蛙	不蛙	一蛙	一蛙	不蛙	不蛙	不蛙	不蛙
외형5	263	54장-우	1-중		足	足	足	足	足	足	足	是
	282	31장-좌	5-하		間	里	里	里	里	里	里	里
	304	4장-우	7-중		忽	忍	忽	忽	忍	忍	忍	忍
	324	44장-우	1-중하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三
	325	46장-우	1-중하		三	五	五	五	三	五	三	三
	325	46장-우	1-하		△	△	△	△	△	△	△	△
	331	58장-우	6-상중		○	○	○	○	○	◇	○	○
331	58장-우	9-상중		○	○	△	△	○	○	○	○	

잡병1	337	5장-좌	10-중하		王	旺	時	時	旺	旺	旺	旺
	343	17장-우	2-상중		白	曰	曰	曰	白	白	曰	曰
	344	19장-우	3-하		也	也	也	也	之	之	之	也
	348	28장-좌	5-상중		詳	祥	祥	祥	祥	祥	祥	祥
	352	36장-우	1-중		醒	醒	醒	醒	輕	輕	醒	醒
	355	42장-우	3-상		緣	緣熱	緣熱	緣熱	緣熱	緣熱	緣熱	緣熱
잡병2	384	40장-우	1-하		認	認	忍	忍	忍	忍	忍	忍
	387	45장-좌	1-중하		循	循	解	解	解	解	解	解
	395	61장-좌	4-상		破	破	返	返	返	返	返	返
잡병3	402	3장-우	9-상중		膈	膈	膈	膈	膈	隔	隔	隔
	402	4장-좌	10-하		桔梗枳殼湯	桔梗枳殼湯	[桔梗枳殼湯○方見胸部]	[桔梗枳殼湯○方見胸部]	[桔梗枳殼湯○方見胸部]	[桔梗枳殼湯○方見胸部]	[桔梗枳殼湯○方見胸部]	[桔梗枳殼湯○方見胸部]
	405	10장-우	5-상중		去二分	去二分	減	減	減	減	減	減
	405	10장-좌	5-중		苦	若	若	若	若	若	若	若
	407	13장-좌	3-중		氷	水	永	永	氷	氷	氷	氷
	416	32장-우	6-중		人參白朮	人參白朮	人參陳皮白朮	人參陳皮白朮	人參陳皮白朮	人參陳皮白朮	人參陳皮白朮	人參陳皮白朮
	424	47장-우	4-하		上	上	下	下	下	下	下	下
	426	51장-좌	1-상		赤茯苓	赤茯苓	黃芩	黃芩	黃芩	黃芩	黃芩	黃芩
	426	51장-좌	1-상중	貼	服	服	服	服	服	服	服	服
잡병4	437	6장-우	7-중		五	五	五	五	三	三	三	五
	440	12장-좌	9-중하		攷	攷	攷	攷	攷	攷	攷	故
	444	19장-좌	5-하		作	作	作	作	打	打	打	打
	451	33장-좌	5-중		弦	弦	弦	弦	眩	眩	眩	眩
	452	35장-좌	1-하		散	散	散	散	○	○	散	散
	452	35장-좌	10-중하		精	精	精	精	柯	柯	柯	精
	457	45장-좌	10-중		面	面	面	面	而	而	而	面
	461	53장-우	3-중		七	七	上	上	上	上	上	上
	461	53장-우	4-중		平胃散	平胃散 [方見醫林]	平胃散 [方見醫林]	平胃散 [方見醫林]	平胃散 [方見醫林]	平胃散 [方見醫林]	平胃散 [方見醫林]	平胃散 [方見醫林]
잡병5	468	8장-좌	1-중		二方	二方	方	方	二方	二方	方	方
	472	15장-우	2-중		棕	棕	棕	棕	棕	棕	棕	棕
	475	22장-좌	10-상중		子	子	黃	黃	黃	黃	黃	黃
	476	24장-좌	8-하		飲	飲	散	散	散	散	散	散
	478	28장-우	7-상중		久	久	久	久	久	久	久	人
	486	43장-우	10-상		斤	斤	斤	斤	升	升	斤	斤
	487	46장-우	9-하		五	五	加	加	加	加	加	加
잡병6	495	1장-우	5-상		○	○	○	○	●	●	○	○
	497	5장-우	2-중		實	殼	殼	殼	殼	殼	殼	殼
	507	26장-우	1-상		服[丹心]	服[丹心]	服[丹心]	服[丹心]	누락	누락	服[丹心]	服[丹心]
	519	50장-우	9-중		斗	升	升	升	升	升	升	升
	522	56장-우	1-중		朮	木	朮	朮	木	朮	木	木
잡병7	527	2장-우	6-하		耳	耳	耳	耳	而	而	耳	耳
	530	8장-좌	4-상중	匕	上	上	上	上	上	上	上	上
	537	22장-좌	4-중		天	大	天	天	天	天	大	天
	546	40장-우	7-상		使	使	便	便	便	便	便	便
	546	40장-좌	4-상중		惟	惟	惟	惟	有	有	惟	惟
	548	44장-우	10-상		或煎湯服	或煎湯服	누락	누락	누락	누락	누락	누락
잡병8	557	1장-좌	9-중		疔	病	病	病	病	病	病	病
	558	4장-좌	10-중		婢	婢	婢	婢	脾	脾	婢	婢
	564	15장-좌	6-하		夫	夫	夫	夫	大	大	大	夫
	571	30장-우	9-하		五藏	五藏	入門	入門	入門	入門	入門	入門
	575	38장-좌	3-중하		日	日	月	月	月	月	月	月

판본별 교감을 통한 『동의보감』의 정본화

잡병9	593	14장-좌	2-중		咬	咬	咬	咬	咬	咬	咬	交
	595	18장-좌	1-중하		斗	汁	汁	汁	升	升	升	升
	602	32장-좌	4-중		小	小	小	小	少	少	少	少
	608	44장-우	3-중		恰	恰	恰	恰	憐	憐	憐	憐
	608	44장-좌	5-중		三	三	三	三	五	五	三	三
잡병10	616	3장-우	7-상		補	調	調	調	調	調	調	調
	616	4장-우	1-중		兩	錢	兩	兩	관독불가	錢	兩	兩
	622	15장-좌	4-중		常	當	當	當	當	當	當	當
	629	29장-우	1-중		生	坐	坐	坐	生	生	生	生
	631	33장-우	1-하		方見血門 ○入門	행 밀림	행 밀림	행 밀림	행 밀림	행 밀림	행 밀림	행 밀림
잡병11	637	45장-우	10-하		茯神黃芪湯	[茯神 黃芪湯]	[茯神 黃芪湯]	[茯神 黃芪湯]	[茯神 黃芪湯]	[茯神 黃芪湯]	[茯神 黃芪湯]	[茯神 黃芪湯]
	646	4장-좌	2-중하		月	月	歲	歲	歲	歲	歲	歲
	652	15장-우	3-중하		聲	聲	驚	驚	驚	驚	驚	驚
	652	15장-좌	9-중하		又	又	又	又	入	入	又	又
	653	17장-좌	3-하		[一云 芡實大]	[云芡實大]	[一云察大] 芡	[一云察大] 芡	[一云 芡察大]	[一云 芡察大]	[一云察大] 芡	[一云察大] 芡
	653	18장-좌	10-하		○	○	○	○	누락	누락	누락	○
	674	60장-좌	8-중하		沸	沸	沸	沸	沸	沸	沸	濟
탕액1	681	74장-좌	5-중	駁	駁	駁	駁	駁	駁	駁	駁	駁
	690	11장-좌	1-상		兼之	芍藥	芍藥	芍藥	芍藥	芍藥	芍藥	芍藥
	698	28장-좌	4-상중		[方見雜方]	未詳	[方見雜方]	[方見雜方]	未詳	未詳	未詳	未詳
	710	51장-우	2-중		奴	奴	奴	奴	也	也	奴	奴
	710	51장-우	2-하		者尤佳 [入門]	[者尤佳 ○入門]	者尤佳 [入門]	者尤佳 [入門]	[者尤佳 ○入門]	[者尤佳 ○入門]	[者尤佳 ○入門]	[者尤佳 ○入門]
탕액2	710	51장-우	10-상		暗	暗	暗	暗	暗	晴	晴	晴
	713	57장-좌	7-하		一云小毒	一云出毒	云小毒	云小毒	一云毒	一云有毒	一云毒	一云毒
	717	5장-좌	6-상중		暴	暴	暴	暴	曝	曝	曝	曝
	729	29장-우	4-중		囁	囁	膈	膈	膈	膈	膈	膈
	730	31장-우	8-중		歸	歸	歸	歸	明	明	明	明
탕액3	732	35장-우	9-중하		微	微	甘醎	甘醎	甘醎	甘醎	甘醎	甘醎
	743	10장-좌	2-하		了	了	了	了	了	了	了	子
	744	12장-우	1-상		난외에 唐	난외 네모 속에 唐	누락	전체 없음	난외에 唐	전체 없음	난외에 唐	전체 없음
	750	24장-우	9-하		1행 20자	1행 20자	1행 19자	1행 19자	1행 19자	1행 19자	1행 19자	1행 19자
	752	27장-좌	2-하		噎	噎	壹	壹	壹	壹	壹	壹
	756	36장-좌	9-중하		且	且	且	且	且	且	二	五
	765	54장-좌	4-중		入	入	作	作	作	作	作	作
침구	767	1장-우	8-상		【鑱+免】	鑱	鑱	鑱	【鑱+免】	【鑱+免】	鑱	鑱
	770	8장-우	10-중		失	夫	夫	夫	失	失	失	失
	776	20장-우	7-상중		銳	兌	兌	兌	兌	兌	兌	兌
	781	30장-우	4-중		宮	宮	宮	宮	官	宮	宮	官
	783	34장-우	10-중		輔骨謂輔 佐髀骨在 髀骨之外	輔骨謂輔 佐行骨在 髀骨之外骨	輔骨謂輔 佐行骨在 髀骨之外骨	輔骨謂輔 佐行骨在 髀骨之外骨	輔骨謂輔 佐行骨在 髀骨之外骨	輔骨謂輔 佐行骨在 髀骨之外骨	輔骨謂輔 佐行骨在 髀骨之外骨	輔骨謂輔 佐行骨在 髀骨之外骨
	783	34장-좌	10-상		俠溪二穴	전체 누락	전체 누락	전체 누락	俠溪二穴	俠溪二穴	俠溪二穴	俠溪二穴
	786	40장-우	9-중하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丑
	786	40장-좌	5-중하		天	天	天	天	大	大	大	天
	793	53장-좌	8-중하		∧	○	○	○	○	○	○	○
	799	65장-우	9-상	들여 쓰기 없음	들여쓰기 1칸	들여쓰기 1칸	들여쓰기 1칸	들여쓰기 1칸	들여쓰기 1칸	들여쓰기 1칸	들여쓰기 1칸	들여쓰기 1칸

2. 판본 간 관계 분석

교감표를 데이터로 삼아 수행한 유사도 분석에서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기영(나)와 D기영(국)이 유사도 0.94로 가장 비슷한 판본으로 파악되었고, E갑완(나)와 F갑완(국)가 0.9, G갑완(와)와 H갑완(남)가 0.8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A초간(국)과 F갑완(국)의 유사도가 0.31로 가장 이질적인 판본으로 나타났으며, A초간(국)과 E갑완(나)가 0.37, B갑영(동)과 F갑완(국)가 0.42로, 그 다음으로 이질적인 판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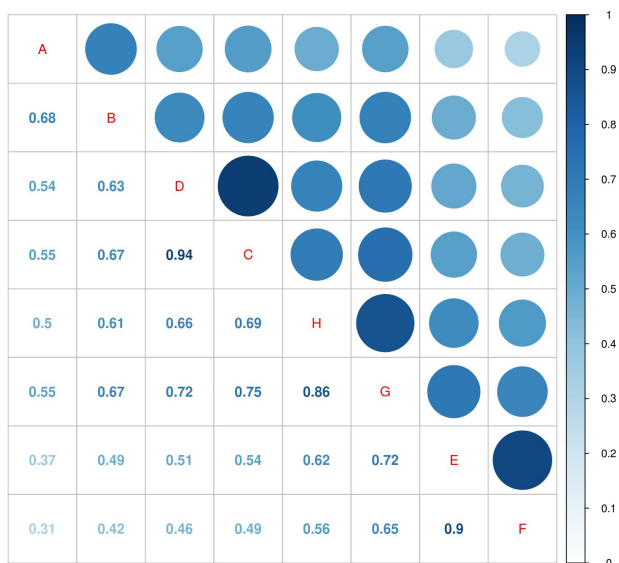


그림 1. 동의보감 판본 간 유사도

A : A초간(국), B : B갑영(동), C : C기영(나), D : D기영(국), E : E갑완(나), F : F갑완(국), G : G갑완(와), H : H갑완(남)

교감 데이터를 통해 수행한 다차원척도법 분석에서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C기영(나)와 D기영(국), E갑완(나)와 F갑완(국), G갑완(와)와 H갑완(남)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표시되었다. 유사도 수치가 작을수록 거리로는 멀게 나타나므로 서로 같은 결과이다. 앞의 유사도 결과에서 알 수 없었던 것은 A초간(국)과 B갑영(동)의 관계이다. 이 둘은 유사도 수치 0.68로 B갑영(동)과 C기영(나)의 0.67, C기영(나)와 H갑완(남)의 0.69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체적인 지형을 조

망해 보니 A초간(국)과 B갑영(동)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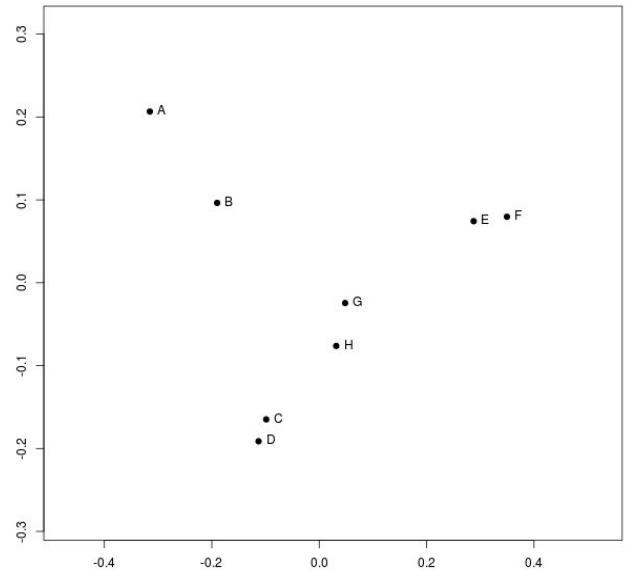


그림 2. 동의보감 판본 사이의 관계

A : A초간(국), B : B갑영(동), C : C기영(나), D : D기영(국), E : E갑완(나), F : F갑완(국), G : G갑완(와), H : H갑완(남)

교감 데이터를 통해 수행한 계층적군집분석으로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교감 대상 판본은 컷오프 수준을 0.2로 하였을 경우¹⁹⁾ 군집[E갑완(나), F갑완(국)], 군집[A초간(국)], 군집[B갑영(동)], 군집[C기영(나), D기영(국)], 군집[G갑완(와)-H갑완(남)] 등 크게 5가지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을 이룬 개체 사이에서는 C기영(나)와 D기영(국)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았고 G갑완(와)와 H갑완(남)의 거리가 가장 멀었다. A초간(국)과 B갑영(동)은 다소 모호한 관계로 컷오프 수준 0.2에서는 군집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컷오프 수준을 높일 경우 군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다차원척도법의 결과와 일치한다. 군집 사이의 관계를 보면, 군집[C기영(나), D기영(국)]과 군집[G갑완(와)-H갑완(남)]이 상대적으로 가깝게 표시되었으며, 군집[E갑완(나)-F갑완(국)]의 경우 나머지 판본과 가장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 계층적군집분석의 결과는 데이터에 맞게 적당한 컷오프 수준(Cut-off Levels)을 정하여 그 하위에 표시된 것을 군집으로 본다. <그림 3>의 경우, 컷오프 수준을 0.4으로 본다면 군집1(E, F), 군집2(A, B), 군집3(C, D, G, H)의 3가지 군집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 수준을 0.2로 본다면 군집1(E, F), 군집2(A), 군집3(B), 군집4(C, D), 군집5(G, H)의 5가지 군집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차원척도법의 결과를 참고하여 컷오프 수준을 0.2로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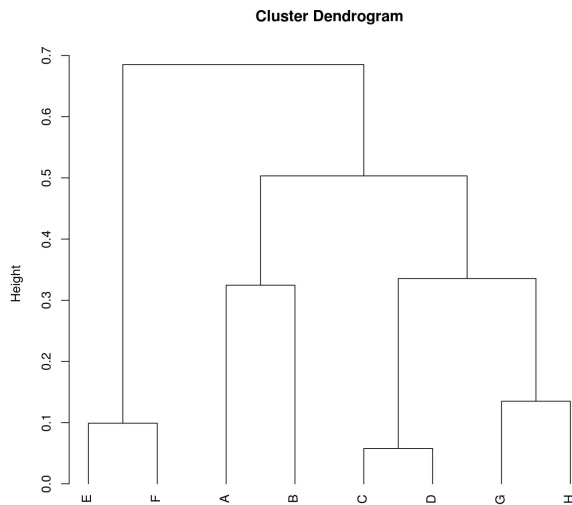


그림 3. 동의보감 판본의 군집

A : A초간(국), B : B갑영(동), C : C기영(나), D : D기영(국), E : E갑완(나), F : F갑완(국), G : G갑완(와), H : H갑완(남)

IV. 교찰

1. 판본 간 차이

교감 결과 판본 사이에 주요하게 나타난 차이점을 글자의 차이, 구절의 차이, 형태의 차이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었다.

1) 글자의 차이

우선 판본 사이에는 글자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글자의 차이는 다시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이다. 판본 사이에 가장 빈번히 나타난 차이였다. 활자나 목판에서 획의 일부가 떨어지게 되면 숫자의 차이가 쉽게 발생한다. 가장 많이 혼용되는 경우는 一, 二, 三, 五 4가지이다. 五에서 세로획이 떨어지면 三이나 二가 되고, 三에서 획이 떨어지면 一이나 二가 된다. 이렇게 생겨나는 판본 간 숫자의 차이는 모든 고문헌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는 획의 탈락 이외에도 용량 등의 변화로 발생하기도 한다. 교감표(<표 2>)를 기준으로 93, 141, 209, 222, 324, 325, 437, 608페이지에 해당한다.

둘째, 글자의 일부분이 탈락되어 다른 글자로 혼동된 경우이다. 초간본의 丩가 E갑완(나) 등의 판본에서는 세로

획이 탈락된 丩형태만 남는데 H갑완(남)에서 又로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氷과 水, 天과 大, 夫와 大, 干과 工과 下, 失과 夫 등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감표(<표 2>)를 기준으로 20, 132, 169, 177, 407, 537, 564, 652, 770, 786페이지에 해당한다.

셋째, 글자의 형태가 비슷하여 혼동이 생긴 경우이다. 초간본의 𩺰가 이후 판본에서 大口魚로 변한 것이 특징적인 예이다. 주로 忽과 忍, 白과 曰, 七과 上, 朮과 木, 宮과 官 등을 혼동한 경우가 눈에 띈다. 이 밖에 E갑완(나), F갑완(국) 판본에서는 형태는 전혀 다르지만 독음이 같은 한자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많았다. 교감표(<표 2>)의 64, 304, 343, 402, 461, 522, 629, 729, 781페이지에 해당한다.

넷째, 글자가 누락된 경우이다. 활자를 조판하거나 목판을 새기는 과정에서 일부분의 글자가 누락될 수 있다. 또한 판각 후에도 마멸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에서 자주 발생한다. 누락된 글자가 있는 판본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누락 부분까지 계승하기 때문에 판본의 계승 관계를 유추할 수도 있다. 혼하지 않지만 B갑영(동), C기영(나), D기영(국)에서는 침구편의 협계혈(俠谿穴) 2행이 통째로 누락된 경우도 있다. 교감표(<표 2>)를 기준으로 25, 42, 179, 468, 507, 653, 783페이지에 해당한다.

다섯째, 기호가 달라진 경우이다. 초간본의 “如八字”에서 八 기호가 후대 판본에서는 엉뚱하게 〇 기호로 변하기도 하고, 초간본의 △ 기호를 후대 판본에서 △로 혼동한다거나, 권점을 판본마다 ◇, △, ● 모양으로 표기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탕액편에서 중국 약재를 표기하는 “唐” 표 시도 초간본과 E갑완(나) 등의 판본에서는 난외에 작게 쓰지만 B갑영(동) 판본은 네모 속에 唐을 쓰기도 하고 D기영(국) 판본처럼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교감표(<표 2>)의 325, 331, 495, 744, 793페이지에 해당한다.

여섯째, 글자의 차이로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이다. 초간본 등에서는 白朮로 되어있는데 C기영(나) 등에서는 白只로 되어 있다거나, 초간본에서는 三間으로 되어 있는데 후대 판본에서는 三里로 되어 있다거나, A초간(국)과 B갑영(동)에서는 月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판본에서는 歲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단어가 본초명이나 경혈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출처를 대상으로 면밀하게 타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교감표(<표 2>)의 126, 147, 163, 282, 497, 575, 646페이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H갑완(남)에는 나머지 7종 판본과 다른 글자가 가끔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H갑완(남)은 영인

과정에서 원문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글자의 차이가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세주인 “[己之所勝]”의 윗줄을 하나의 글자로 인식하여 “祀[之勝]”으로 고친다거나 生을 住로, 足을 是로, 攷를 故로, 了를 子로 잘못 수정한 경우도 있었다. 교감표(<표 2>)의 81, 140, 198, 263, 440, 478, 593, 674, 743, 756, 786페이지에 해당한다.

2) 구절의 차이

구절의 차이 가운데 가장 많이 관찰된 것은 “方見○○”과 같은 출처 표기 부분의 오류이다. 초간본을 제외한 7종 판본에서는 동일하나 초간본만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초간본에서 “五皮散沈香降氣湯[四方見上]”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후대 판본에서는 출처와 배치를 수정하여 “沈香降氣湯[三方見上]五皮散[方見浮腫]”으로 고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내의원 교정 당시에 출처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출처가 추가되거나 수정되면서 행을 넘겨 초간본과 후대 판본의 위치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교감표(<표 2>)의 84, 92, 461페이지에 해당한다.

3) 형태의 차이

형태의 차이는 주로 목활자본과 목판본의 인쇄 방식 때문에 발생되었다. 목활자본인 초간본에서는 종종 활자를 다른 행보다 1개를 더 우겨넣는데, 후대에 목판으로 간행할 때 행자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위치가 달라졌다. 행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주로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초간본에서 “宜通肝散[得效]”라고 한 부분을 후대 판본에서 “[宜通肝散○得效]”처럼 처리하였는데, 본래 출처인 “得效”만 세주지만 행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본문의 “宜通肝散”까지 세주로 넣고 출처와 구분하기 위하여 권점을 추가한 것이다. 교감표(<표 2>)의 220, 631, 637, 710, 750페이지에 해당한다.

2. 교감기를 활용한 판본 감별

『동의보감』은 오늘날 진존되는 고서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진존본의 대부분은 완질이 아니라 잔본(殘本)인 경우가 많다. 이런 잔본은 어떤 판본의 일부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 결과 판본마다 몇 가지 특징적인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활용하면 신출 자료의 판본이 어떤 것인지 보다 쉽게 비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아 표 형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판본 감별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교감기

권	페이지	장차	행-열	A초간(국)	B감영(동)	C기영(나)	D기영(국)	E갑완(나)	F갑완(국)	G갑완(와)	H갑완(남)
내경1	99	61장-좌	9-중	朱	[方見婦人]朱	朱[見人]朱	낙질	[方見婦人]朱			
내경2	114	16장-우	7-중하	[一云黃連]		黃連		[一云黃連]	黃[云連]	[一云黃連]	黃[云連]
내경4	199	53장-좌	6-중	不得	之得	之不					
외형2	254	36장-좌	7-중하	不蛙	不蛙	一炷		不炷			
잡병1	337	5장-좌	10-중하	王	旺	時		旺			
잡병1	344	19장-우	3-하	也				之		也	
잡병4	444	19장-좌	5-하	作				打			
잡병4	451	33장-좌	5-중	弦				眩			
잡병4	452	35장-좌	10-중하	精				柯		精	
잡병4	457	45장-좌	10-중	面				而		面	
잡병9	595	18장-좌	1-중하	斗	汁				升		
잡병9	602	32장-좌	4-중	小				少			
잡병9	608	44장-우	3-중	怜				憐			
잡병10	616	4장-우	1-중	兩	蔑	兩		관독불가	錢	兩	
잡병11	653	17장-좌	3-하	[一云芡實大]	[云芡實大]	[一云窠大]芡		[一云芡窠大]	[一云窠大]芡		
탕액1	698	28장-좌	4-상중	[方見雜方]	未詳	[方見雜方]		未詳			
탕액1	710	51장-우	10-상			暗		晴			
탕액1	713	57장-좌	7-하	一云小毒	一云出毒	云小毒		一云毒	一云有毒	一云毒	
탕액2	717	5장-좌	6-상중			暴		曝			
탕액2	730	31장-우	8-중			歸		明			
침구	767	1장-우	8-상	[鑊+免]		鑊		[鑊+免]		鑊	

3. 판본 사이의 관계

교감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의보감』 판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견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초간본이 『동의보감』의 근간이 되는 판본이라는 점이다. 교감이나 번역 시 일반적으로 초간본을 저본으로 선택한다. 이는 원작자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후대 판본들로만 교감을 진행하였을 경우 글자 혹은 구절의 변화 양상을 올바르게 추적할 수 없다는 학술적인 이유도 내포되어 있다. 『동의보감』을 대상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도 초간본과 후대 판본의 글자 차이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간본을 배제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 가운데는 오히려 초간본이 옳은 글자인 경우도 많았다. 초간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초간본과 내의원 교정 이후 성립된 판본들²⁰⁾이 조문 출처 부분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18세기 중반 수행된 내의원 교정에서 조문의 출처 확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같은 판본으로 확인된 판본 내에서도 글자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갑술완영중간본의 경우에는 계열이 분리될 정도로 차이가 컸다. E갑완(나)와 F갑완(국)은 같은 갑술완영본인 G갑완(와) 및 H갑완(남)과 같은 판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컸다. 이 두 판본은 여백에 좌측 행의 내용이 중복하여 들어간다가 독음이 같은 한자를 혼동하여 판각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를 통해 갑술완영중간본은 상업적으로 대량 출판한 방각본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H갑완(남)은 갑술완영중간본을 저본으로 삼았으나 불확실한 글자를 수정하고 문맥에 따라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같은 갑술완영중간본인 G갑완(와)와의 차이는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수정이 오히려 잘못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H갑완(남)을 열람할 때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해야 한다.

기해영본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적었다. C기영(나)와 D기영(국)은 사실상 같은 판본으로 약간의 차

이만 있었다. 이 차이는 보각(補刻) 등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셋째, 갑술완영개간본의 간행 과정, 특히 간행 연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재개되어야 한다. 갑술완영개간과 갑술완영중간의 간행 연도는 모두 1814년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갑술완영개간본은 초간본과 가장 유사한 판본으로 나타났다(<그림 2>, <그림 3>). 특히 행자수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적인 부분까지 그대로 답습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이른 시기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목록,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은 초간본과 매우 유사한데 반해 탕액편과 침구편에서는 초간본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를 주제로 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V. 결론

고서(古書)에서 판본(版本)이 출판의 결과물이라면, 정본(定本)은 그 결과물들을 취합하여 원 저작자의 의도에 가장 근접하도록 만든 인공적인 텍스트이며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는 출간을 위해 이전 텍스트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본화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대 교정의서국(校正醫書局)에서 이루어진 교정작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교정의서국의 교정과 출간 작업이 후대 의학서적을 전승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정(校正)’하여 출판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감과 정본화는 고문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영역이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 고전 텍스트의 교정(校訂)과 교감(校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출판하는 정본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²¹⁾. 이 모든 과정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학술적 가치 또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별도의 교감 및 정본화 연구는 드문 편이며 중국의 정본화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20) 본고에서 조사한 판본은 초간본을 제외하고 간기(刊記)에 공통적으로 “內醫院校正”라고 적혀있다. 내의원(內醫院)의 교정(校正)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의미이다. 내의원 교정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영조 29년(1753)년 『승정원일기』 기사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29년(1753) 9월 23일 “在魯曰, 增補萬病回春, 亦醫書之緊要者, 而昔年以鑄字, 印出若干件, 即今餘存絕少云. 此則令嶺南開刊, 而一依東醫寶鑑例, 寫出校準, 下送開刊後, 進上及院上件印送. 亦令一體舉行, 何如? 上曰, 依爲之.” 박훈평, 앞의 논문 참조.

21) 中國 人民衛生出版社에서 출판된 中醫古籍整理叢書, 湖南科學技術出版社에서 출판된 中醫古籍珍本集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고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동의보감』의 정본화를 수행한 결과이다. 『동의보감』에 대해서는 이미 몇 차례 대규모 교감 작업이 수행되었으나, 정작 기초가 되는 판본 간 교감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질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소장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고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는 초간본 1종, 갑술영영개간본 1종, 기해영영개간본 2종, 갑술완영중간본 4종(남산당본 포함) 등 모두 8종의 판본을 수집하여 판본 사이에 교감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동의보감』 판본 사이에는 판각 및 인쇄 과정에서 생겨난 오류가 가장 많았다. 획의 누락으로 생겨난 숫자의 차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글자가 누락되는 경우, 글자의 일부가 탈락되어 다른 글자 혹은 기호와 혼동되는 경우, 형태가 비슷하여 다른 글자로 오기된 경우 등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 전혀 다른 글자로 변경되어 뜻이 크게 달라진 경우, 초간본의 인용 출처 표기가 이후 판본에서 수정된 경우처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교감 과정에서 판본의 특징 및 판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견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초간본의 중요성이다. 초간본을 기준으로 후대 판본들을 추적해야만 『동의보감』의 판본별 변화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특기할 만 한 점은 초간본과 후대 판본들이 조문 출처 부분에서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18세기 중반 수행된 내의원 교정에서 조문의 출처 확인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판본에 대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동일한 판본 내에서도 글자의 출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갑술완영중간본의 경우 일부 판본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갑술완영중간본에 한해서는 방각본의 존재를 방증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감 결과를 통한 판본 비교에서 1814년으로 알려져 있던 갑술영영개간본이 초간본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이 판본의 간행 연도가 1814년 이전일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된다.

현재 통행본인 남산당본에 대한 평가도 재고되어야 한다. 남산당본은 갑술완영중간본을 저본으로 영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글자들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교감 결과 이러한 수정이 잘못된 곳도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동의보감을 대상으로 수행된 많은 연구들이 남산당본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가벼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감을 통한 정본화는 후속 연구의 기본이 되는 정본을 만드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서적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한의계에서 교감의 중요성이 환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 초간본. 목활자본. 1613.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 貴古朝68-3).
2. 己亥嶺營開刊. 목판본. 1779. 일본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韓6-77).
3. 己亥嶺營開刊. 목판본. 1779.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승계 古7671-34).
4. 甲戌完營重刊(번각본). 목판본. 19세기 중후반(추정). 일본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韓12-24).
5. 甲戌完營重刊(번각본). 목판본.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한古朝68-2).
6. 甲戌完營重刊. 목판본. 1814. 일본 와세다대학 소장(ヤ 09 00773).
7. 甲戌嶺營開刊. 목판본. 1814(?). 일본 동양문고 소장(XI -4-B-53).
8. 허준. 『일본 동의보감』. 신증판. 목판 수정본. 서울:남산당. 1987.
9. 박훈평. 「17-18세기 조선 간행 『동의보감』 목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 대한의사학회. 2015;28(1).
10. 倪其心 著. 신승운 외 옮김. 『교감학개론』. 서울:한국고전번역원. 2018.
11. 한국고전번역원 기획. 최채기 지음. 『고전적정리입문』. 대전:학민문화사. 2011.
12. 許浚 編着. 郭靄春 主校. 『東醫寶鑑』.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13. 허준 저. 원진희 외 점교. 『(정교)동의보감』. 서울:한미의학. 2001.
14. 허준 저. 원진희 외 역. 『(정교주역)동의보감』. 2판. 서울:신우문화사. 2007.
15. 허준 저. 윤석희 외 옮김. 『동의보감』. 초판 3쇄. 하동:

동의보감출판사. 2006.

16. 허준 저. 한국한의학연구원 간행. 『내손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광주:수퍼노바. 2017.
17. 허준 저. 『원본 동의보감 신증판』. 신증판 7쇄. 서울:남산당. 2004.
18. 黃永年 지음. 김언중, 김수경 옮김. 『고적정리개론』. 서울:한국고전번역원. 2013.